기획논문 (7~52쪽)

葉石濤(1925~2008)와 陳映眞(1947~2016)

-'대만문학'의 두 갈래 길-

최말순*

1. 머리말
2. 葉石濤의 대만문학론 주장과 내용
3. 陳映眞의 중국문학귀속론과 사회사 시각
4. '대만문학'의 두 갈래 길

1. 머리말

대만문학의 지식장에서 葉石濤와 陳映眞은 각각 대만의식과 중국의식의 대표자로 잘 알려져 있다.[1] 식민지시기에 출생한 이들은 해방 후부터 2000년대까지 소설 창작은 물론 평론가와 이론가로서 대만문학의 발전에 참여하고 개입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1970년대 말부터 등장한 '대만문학'의 개념과 해석, 평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진행된 統獨論爭에서 獨立과 統一의 입장과 주장을 대표하는 논쟁의 당사자

* 臺灣 國立政治大學 臺灣文學研究所 副教授

1) 陳芳明은 두 사람의 1980년대 좌익소설을 논하면서 대만의식과 중국의식의 두 노선으로 양자를 정의했다. 陳芳明(2020.12.), 「葉石濤與陳映眞:八〇年代台灣左翼小說的兩個面向」, 『台灣文學學報』第十七期, 國立政治大學臺灣文學研究所, 29-43쪽.

이자 주요 담론주체였다.

‘대만문학’이란 용어는 대만의 각 역사시기마다 언급하는 이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여 왔다. 가령 식민지시기(1895~1945) 일본통치자나 일본에 협력한 대만지식인들에게 있어 대만문학은 일종의 이국정조를 표현하는 식민지문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식민통치에 반대하고 비판한 대만작가들에게 있어 대만문학은 일본식민체제에 저항하여 그 질곡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문학을 일컫는 것이었다. 이차대전 종결과 함께 중국으로 귀속된 이후에는 중국내전과 세계냉전의 결과로 중국과 분리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만지역의 문학이란 의미로 광범위하게 지칭되어 왔다.

대만문학의 이러한 개념과 정의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1950, 60년대를 거치며 국가정책의 직접적 반영인 반공문학과 미국의 문화냉전의 영향에서 비롯된 현대파 문학이 득세하던 대만문학의 지형은 1960년대 중반기부터 이와는 달리 주로 향토의 약소계층 인물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소설이 창작되면서 새로운 기운이 형성되었고, 1970년대 초 대외적으로 일련의 외교위기[2]와 釣魚台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장에 맞선 保釣運動을 겪으며 미국원조와 일본기술로 대표되는 신제국주의의 지배성격과 대만경제의 종속성 및 이런 조건에서 형성된 모더니즘문학과 문화전반의 서구추종 성격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민족과 현실로의 회귀운동이 일어났고 문학장에서도 현대파 시와 모더니즘소설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제기되어 현대시논전(1972)

2) 1971년 10월 25일 제26회 유엔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어 중화민국을 대신하게 되자 중화민국정부는 이에 반발해 유엔에서 탈퇴하였다. 같은 해 20여 개 국가와 단교에 이어 1972년 미국이 중국을 승인하며 대만은 향후 국제적 고립을 겪게 되었다.

과 향토문학논쟁(1977~1978)을 불러왔다. 문단의 이 두 논쟁은 문학의 서구모방, 민중과 현실로부터의 遊離현상을 비판하고 민족성, 민중성과 현실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연속성을 띄고 있었지만 전자가 문단내부의 토론에 그친 반면, 후자는 사상검열의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될 위기를 맞았다. 즉 향토문학에 반대하는 국민당 인사와 반공문학, 현대파 작가들은 향토문학이 현실의 모순을 강조하고 계급투쟁을 그리는 1930년대 중국의 工農兵문학과 다를 바 없다는 사상문제를 제기했고, 향토파 작가들은 이에 맞서 민족지향성과 리얼리즘성격에 초점을 맞추었다. 계엄(1949~1987)상황에서 정치사건으로 확산될 뻔했던 이 논쟁은 대만문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에 대한 사고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는 논쟁 당시 葉石濤에 의해 향후 중국문학과는 별개인 一國文學으로서의 '대만문학' 개념의 시초로 평가받은 향토문학의 '대만입장'과 '대만의식'[3]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논쟁의 당사자이며 향토문학파였던 陳映眞에 의해 중국으로부터의 分離主義경향이 지적되었는데[4] 당시에는 더 이상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어 1979년 美麗島事件[5]을 분수령으로 정치운동과 문학주장이 결합되면서 국민당정부에 대한 분노가 대만독립과 대만문학건립 촉구로 옮겨가게 되었다. 당시 반국민당 인사들이 다수 정치권으로 진입하면서 정치결사운동인 黨外運動[6]은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1987년 해엄과 더불어 北美의

3) 葉石濤(1977.5.), 「臺灣鄉土文學史導論」, 『夏潮』2:5.

4) 許南村(1977.6.), 「'鄉土文學'的盲點」, 『臺灣文藝』55期.

5) 1979년 12월 10일 高雄에서 발생한 官民충돌로 일명 高雄사건이라고도 한다. 당일 美麗島 잡지사 성원을 핵심으로 하는 당외 인사들이 민주와 자유를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이자 국민당정부가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해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당외 인사들이 체포되어 국가반란죄로 심판을 받았다. 1947년 二二八事件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충돌로 알려져 있다.

대만독립운동 세력인 臺灣獨立聯盟이 국내로 들어와 民主進步黨으로 변신하면서 대만독립강령을 선포하고(1991) 공개적으로 대만독립을 표방하게 된다.

향토문학논쟁 당시 언급되었던 문학에서의 '대만의식'주장은 이후 문학사의 여러 의제에 대한 토론을 거치며 점차 독자적인 대만문학론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葉石濤가 이론가로 활약하게 된다. 이렇게 정치적 대만독립운동(이후 臺獨運動으로 간칭)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된 문학에서의 대만독립 주장(이후 文學臺獨으로 간칭)은 1980년대 초부터 중국과 완전히 다른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진 '대만문학론'으로 발전했고 문학가와 지식인들 사이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이에 陳映眞은 대만문학의 중국민족귀속성, 민중성과 현실성에 기초하여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 후 30년간의 대만문학이 중국문학과 동일한 반봉건, 반제국주의성격임을 규명하고 중국문학과의 분리주장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었다.

이들의 대만문학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쟁과 대립은 향후 2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문학부문에서 촉발된 統獨의제가 정치적인 臺獨주장의 근거로 작용하는 등 문학장의 문제를 떠나 대만의 역사경험, 사회성질, 국가정체성 및 양안정세와 미래전망까지 포괄하는 중차대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대만문학론과 관련논의에 대한 비교고찰은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7]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남긴 자료의 방대함 때문이겠고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이

6) 黨外運動은 1986년 民主進步黨 성립 이전까지 비국민당 인사들에 의해 유사정당 형태로 진행된 대만의 민주화운동을 가리킨다.

7) 두 사람의 소설, 평론, 문학사적 위치 등 각인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량 누적되어 있지만 문학론에 대한 비교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문학사의 統獨입장에 대해서는 林瑞明(2008.10.), 「兩種台灣文學史—台灣V.S.中國」, 『臺灣文學研究學報』第七期, 國立臺灣文學館, 107-145쪽 참고.

가진 정치적 입장의 선명함이 너무 강한 선입견을 형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문은 1970년대 후반기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葉石濤와 陳映眞의 대만문학에 관한 담론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이론적 근거, 각종 문학사적 의제에 대한 견해를 고찰하기로 한다. 다만 각각 십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모두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논의는 대만이라는 지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식민과 냉전을 경험한 한국문학과의 비교 이해나 탈냉전시대 동아시아 지역의 문학과 미래를 사고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8)]

2. 葉石濤의 대만문학론 주장과 내용

독자적 대만문학론의 건립자로 일컬어지는 葉石濤는 식민지시기인 1925년 대만의 남부도시 臺南에서 태어나 중등학교를 마친 후 일제말기 재대만 일본인작가 西川滿(1908~1999)이 주도한『文藝臺灣』[9)]의 편집에 참여했고 이 시기에 첫 소설「媽祖祭」를 발표했다. 해방 후 사회주의 서적을 구매한 일로 입옥된 적이 있으며 출옥 후 46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문학창작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國家文藝獎을 수상했으며 2004년 總統府國策顧問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문학활동은 소설창작과 평론이 주를 이루며 다수의 산문과 번역을 남기고 있는데 그중 1987년 文學界잡지사에서 출판한『臺灣文學史綱』은 文學臺獨의 입장을 구

8) 식민지시기와 냉전시기 대만문학과 문단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최말순(2019),『식민과 냉전하의 대만문학』을 참고.

9)『文藝臺灣』은 1940년 1월 臺灣文藝家協會에서 발행한 종합문예지로 1944년 1월까지 모두 38호가 발간되었다. 1939년 西川滿이 주도한 시전문지『華麗島』를 이은 것으로 전쟁동원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번 改組를 겪었으며 전쟁협조의 내용이 많다.

체화시킨 성과물로 알려져 있다.

葉石濤의 대만문학론 건립은 1965년 발표한 「臺灣的鄉土文學」[10]에서 식민지시기 대만신문학의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비판적 현실주의로 규정하면서 시작되었고 1970년대 후반 향토문학논쟁 당시 발표한 「臺灣鄉土文學史導論」에 와서 본격화되었다. 그는 이 문장의 도입부에서 대만의 아열대 기후와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 Formosa로 불린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각 시기 대만섬에서 살아 온 여러 종족의 독특한 性情을 형성했기 때문에 향토문학사의 연구에서 대자연과 종족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중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은 인근의 중국민족에서 온 것이지만 역사시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여러 異民族의 유린과 통치, 지리적 위치 등의 원인으로 교류가 단절되어 漢族의 정통문화와는 다른 異國情趣와 농후한 향토풍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사회체제와 예술표현에서 농후하고 강렬한 향토색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민족문화의 한 지류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대만이 자신만의 언어와 문자를 창조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찌되었든 대만향토문학사를 회고할 때 특수한 종족, 풍토, 역사 등의 다원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 다원성이 만들어낸 중국과는 다른 농후한 색채, 소박한 풍격, 풍부한 소재 및 섬이란 지리환경으로 인한 異國思潮의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대만향토문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마치 피부색과 언어에 관계없이 아프리카인과 공동경험을 가진 사람이 창작한 문학을 아프리카문학으로 보는 것과 같이 대만향토문학도 기본적으로 '대만에 거주하는 한민족과 원주민 종족'이 쓴 문학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일찍이 대만을 점령했던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의 작가들이 그들의 언어로 쓴 대만

10) 『文星』97期, 1965.11.

관련 작품과 대만인이 통치자의 언어로 쓴 작품도 포함한다고 하여 屬地主義 경향을 드러내었다. 나아가 그는 이들 작품이 대만향토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대만의식'을 구비해야하는데 '대만을 중심으로' '대만의 입장에서 세계를 투시하는' 작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만의식'을 가진 작품은 '반드시 광대한 대만인민의 생활과 관련 있는 사물을 반영해야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며, 대만역사가 인민들이 압박받고 짓밟힌 역사이므로 대만향토문학은 피식민, 피압박의 공동경험, 즉 '반제, 반봉건'의 경험과 대자연과의 대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대한 인민의 염원과 위배되지 않는 모든 작품을 말한다고 했다.

이러한 대만향토문학 개념의 기초에서 식민지시기 문학을 고찰하였는데 그중 요람기의 계몽운동, 성숙기의 저항운동과 더불어 전쟁기 문학의 서술에서 당시『文藝臺灣』과『臺灣文學』[11]을 무대로 한 대만과 일본작가의 협력이 민족성의 대립이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는 '근대 중국민족의 액운으로 중국민족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 외부민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12]는 결론을 내렸다. 이 문장에서 제시된 견해는 이후 전개된 葉石濤의 대만문학론의 기본적인 얼개라고 할 수 있는데 향토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상은 독자적인 대만문학의 개념, 범위와 성격을 확정지었다고 하겠다. 이후 약 20년간 그의 대만문학론은 갈수록 대만문학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대만의 중국문학'에서 독립된 일국문학으로서의 대만문학론을 건립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중점

11)『臺灣文學』은 황민화시기 張文環등 대만인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발행한 문예지로 西川滿이 주도한 일본인 중심의『文藝臺灣』과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1941년 5월 창간하여 1943년 12월 폐간되기까지 모두 10기가 발간되었다.

12) 張良澤이「鍾理和作品中的日本經驗與祖國經驗」에서 한 말을 차용한 것으로 이에 대해 葉石濤 역시 찬성한다고 했다.

적으로 언급한 역사, 문학의제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대만문학의 중국귀속성과 관련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전의 문장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대만문학이 중국문학의 일환이며 중국문학의 한 지류라는 견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陳映眞에 의해 분리주의 경향이라는 비판을 받은 직후에 나온 「日據時期臺灣文學的回顧與展瞻」[13]에서는 자신의 앞 주장을 부정하는 정도로 강하게 중국문학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다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① 대만은 중국과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일환이며 때문에 대만문학은 중국문학의 한 지류이다. ② 대만사회의 변천과 중국본토 사회의 변화는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문학 역시 중국문학을 따라 전개되어 왔다. ③ 대만문학의 언어는 중국본토와 동일하게 백화문을 채용했으나 식민지란 특수한 상황에서 문화교류가 단절됨에 따라 방언을 받아들여 민중과 함께 호흡했다. ④ 향토문학의 제창은 중국의 민족문화전통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족통치기간에 민족정신을 강조한 문학을 창작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른바 대만의 향토문학이란 중국의 풍속습관과 사상 감정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⑤ 대만문학은 전 국민과 민중에 속하며 일본식민통치자와 같은 특정 정치권력기구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생을 위한 예술이며 사실주의 문학이다. ⑥ 대만문학은 참여문학(committed literature)으로 현실사회에서 탄생했으며 작가는 대다수 민중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변해 왔다. ⑤와 ⑥의 문학성격과 경향에 대한 서술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문학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다른 문장에서도 '대만의 중국문학'이란 말로 중국문학의 지류임을 재삼 확인했고[14] 심지어 반공시기 국민당정부의 문예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채용했

13) 『小說新潮』2期, 1977.10.

14) 「日據時代新文學的回顧」(『中國晚報』, 1978.9.1.); 「論臺灣文學應走的方向」(『中國論

던 三民主義文藝를 창작해야 한다는 등의 언급까지 하면서[15] 대만문학의 독립성을 따로 주장하지 않았다. 훗날 그는 이에 대해 '당시의 정치적 환경'때문이었다고 언급하여 계엄 상황과 국민당정부의 검열 때문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1980년대 초부터 남부지역 문인들에 의해 창간된『文學界』[16]에 참여하면서 변화를 보이는데 점차 대만문학의 '자주성'(originality)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대만문학은 비록 대만섬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 건립한 문학이기는 하나 대만해협 양안 중국인의 사회제도, 생활방식, 사유형태가 현저하게 다르므로 이 다름이 소설의 풍격, 형식, 기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역사가 만들어낸 자연적인 추세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왜곡될 수 없다."[17] 비록 곧 이어서 현실주의 성격으로 볼 때 대만문학이 중국인이 창조한 민족문학에 속한다는 말을 붙이기는 했지만 대만문학의 '농후한 지방색채와 강렬한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나아가 60여 년의 대만문학 역사에서 1945에서 1950년까지의 몇 년 만이 중국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 이외는 독자적, 자주적인 발전을 지속해 자기만의 문학을 모색해 왔다고 하면서 여전히 중국문학의 일환이자 한 지류에 속하기는 하지만 대만문학이 특수한 발전역사와 내용을 갖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18] 또한 원래 漢番雜居의 이민사회인 대만은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壇』12:3, 1981.5.)

15) 「陳少廷先生的'臺灣新文學運動簡史'」(『書評書目』53期, 1977.9.), 「論臺灣文學應走的方向」, 「從鄉土文學到三民主義文學-訪葉石濤先生談臺灣文學的歷史」(『臺灣文藝』62期, 1979.3.) 등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16) 1982년 1월 高雄에서 葉石濤를 위시한 남부지방 문예계 인사들에 의해 창간된 잡지로 본토작가 특집을 마련하고 본토작가의 평론, 시, 소설과 산문을 주로 실었다.

17) 「臺灣小說的遠景」,『文學界』創刊號, 1982.1.

18) 「論臺灣新文學的特質」,『文訊』4期, 1983.10.

에 의한 38년의 점령통치, 이를 축출한 明鄭政權[19], 212년간의 滿淸통치와 그 후 51년간의 일본식민통치를 거치며 서구문화, 漢문화, 滿族문화, 일본문화가 혼합되어 정통 한문화와 이질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식민지 시기와 해방초기의 문학에서는 지방의식의 萌芽에 그치고 있지만 국민당정부의 철수, 美日의 경제와 문화영향 등으로 향후 대만의식과 중국의식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했다.[20]

이런 변화를 겪던 葉石濤의 대만문학론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중국문학과 분리되는 길로 나아간다. 이전의 문장에서 늘 등장하던 '중국문학의 일환', '대만의 중국문학', '중국의식의 공유'같은 용어들이 사라지고 대만의식과 자주독립의 지향이 전면에 등장한다. 「撰寫臺灣文學應走的方向」[21]에서 그는 '대만문학은 세계문학의 일환'이며 "어떠한 외부통치민족에 종속된 附庸문학이 아니다"는 말로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일제시기의 문학이 일본의 外地文學이 아니며, 해방 후의 대만문학 역시 "중국문학의 일환으로 중국문학에 예속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비록 각 시기의 대만문학이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문학관념, 기교의 쇄신과 개진에 그칠 뿐 대만문학의 독립적인 자주성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 원인은 400년 대만의 역사운명 때문인데 외부 통치자에 대항하여 피압박자인 대만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을 위해 분투한 결과가 대만문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만문학은 본질적으로 비옥한 대만문화의 토양에서 건립되었고 대만민중의 민주와 자유에의 소망에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압제에

19) 明鄭政權은 1662년부터 1683년까지 鄭成功이 反淸復明을 내걸고 대만남부에 설립한 정권을 일컫는다.

20) 「接續祖國臍帶之後-從四〇年代臺灣文學看'中國意識'和'臺灣意識'的消長」, 『中國論壇』289期, 1987.10.

21) 『自由時報』, 1991.4.8.

도 저항해 왔다. 이 저항의식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대만의식이라 하겠다. 그럼 대만의식이란 무엇인가? 바로 대만의 토지와 인민에 정체성을 느끼고 대만이 독립자주의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인지하며 대만의 대자연과 대만의 본질, 정신, 문화를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희생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라고 하여 한문화, 중국문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문장을 필두로 「臺灣文學本土化是必然途徑」[22]에서 더욱 더 명확하게 청조, 일본, 국민당정부를 동일한 외부통치세력으로 규정했음은 물론 해방 후 국민당정부에 의해 38년간 지속된 계엄체제에서 강제된 大漢쇼비니즘으로 인해 약체의 본토문화가 궤멸되고 남아있던 일본문화의 흔적도 소멸되었다고 했다.

또한 일제시기의 대만의회설립청원운동[23]은 자치의 길을 모색한 정치적 본토화운동이며 그 일익으로 전개된 신문학은 "처음부터 농후한 본토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24]고 하면서 張文環(1909~1978)을 필두로 한『フオルモサ』, 張深切(1904~1965)를 위시한『臺灣文藝』, 葉榮鐘(1900~1978)을 위시한『南音』, 楊逵(1906~1985)의『臺灣新文學』등 일제시기 문학잡지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만문학의 본토화'였으며 그들은 대만의 각종 문헌, 민간고사, 가요, 민속과 속담 등을 채집하고 정리하여 대만문학을 민중과 토지에 귀속시키는 철저한 토착화 노력을 했다고 하면서 일본의 통치에 저항한 중국민족의 항의문학이라 정의했

22)『文學臺灣』4期, 1992.9.

23) 1921년부터 1934년까지 14년 동안 지속된 자산계급지식인들의 自治運動으로 그 내용은 일본과 달리 단독으로 대만의회를 설치하여 대만의 특수한 요구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두 1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대만에서 각 인사들의 청원서명을 받아 대표단을 구성하고 이들 대표단이 도쿄로 가서 일본제국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4)「臺灣文學本土化是必然途徑」,『文學臺灣』4期, 1992.9.

던 자신의 이전 견해를 완전히 뒤집었다. 기존의 리얼리즘문학이란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본토화의 염원을 달성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해방 후 문학에 대해서는 국민당의 계엄과 독재통치 아래 향토문학이라는 명칭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해 왔는데 1987년 해엄과 더불어 이제 더욱 자유롭고 다양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했다. 동시에 대만문학 토착화, 본토화는 역사적인 필연, 운명임과 동시에 통일파와 독립파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이며 향후 대만의 각 族群[25]이 각자의 문학전통으로 각자의 역사와 전통, 생활경험을 각자의 언어로 표현하는 조화, 자유, 관용, 다원의 문학을 창조하게 될 것이라 했다.

2000년대 초에 나온 「臺灣文學導論」[26]은 상술한 사관에 기초하여 새롭게 쓰일 대만문학사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한 문장이다. 자고이래로 대만은 '다종족의 이민사회'라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하여 각 시기의 역사적 遭遇가 대만문학의 방향을 결정해 왔다고 하면서 대만과 관련해 네덜란드어, 한어, 백화문, 일본어, 대만화문으로 쓰인 작품이 모두 대만문학의 범위에 속하며 해방 후 건너온 중국문인들의 작품도 비록 대만의 토지와 민중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여전히 대만문학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인종, 역사와 더불어 대만문학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후와 생태환경을 포함하는 풍토, 인민생활과 관련된 토지제도를 들고 이런 요소들로 인해 독자적인 대만문학이 형성되었으며 이제 河洛話(閩南語), 客

25) 에스니시티(Ethnicit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각기 다른 언어와 생활습관을 가진 대만의 다문화 공동체 사회에서 각 공동체를 일컫는 개념이다. 대만의 族群은 크게 말레이계 남도어족에 속하는 16개 족의 원주민 부족과 각기 다른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漢人들로 구성되어 있다. 明淸시기에 이주하여 정착한 이들을 本省人, 이차세계대전 이후와 국공내전 패배 후 국민당과 함께 철수해 온 이들을 外省人이라 부르며 전자는 또 크게 중국 福建省 지역에서 이주해 온 閩南人과 주로 廣東省 지역에서 이주해 온 客家人으로 나누며 이들 族群은 각기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

26) 『臺灣新聞報』, 2001.3.5.-3.7.

家話, 原住民語 등 母語文學이 점차 발전해 갈 것이라 전망했다. 이로써 葉石濤는 대만문학의 개념과 범위, 성격을 규정지으며 중국과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대만문학론을 완성했으며 이러한 독립성과 자주성에 기초한 대만문학사는 2011년 陳芳明(1947~)의 『臺灣新文學史』를 통해 실현되었다.[27]

葉石濤가 건립한 독자적 대만문학론의 개념정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된 의제를 찾아보면, 첫째, 일제시기 신문학의 형성과정에서의 중국 오사문학의 영향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식민지시기 대만문학은 중국과 다른 역사경험이라는 점, 근대문학의 탄생기이자 해방 후 반공과 모더니즘문학기를 거치며 제대로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특히 文學臺獨 인사들에게 매우 중시되는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근대문학 형성기-葉石濤에 의하면 요람기-의 문자개혁, 백화문 채용, 리얼리즘의 채택을 통해 피식민 현실을 비판적으로 반영하고 민중들에게 근대문명과 동시에 민족의식을 고취했던 일련의 노력에서 중국 오사문학혁명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학계의 통설이다. 葉石濤 역시 1990년대 이전의 평론에서는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28] 1920년대 北京에서 공부하던 張我軍(1902~1955)의 구문학 비판으로 신구문학논쟁이 촉발되었으며,[29] 성숙기인 1930년대 작가들에게도 "조국인 대륙으로부터의 계승"을 찾아볼 수 있는[30] 등 "대만신문학이 걸음마를 떼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오사운동의 영향을 보았다"[31]라고 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중국

27) 이에 대해서는 陳芳明 스스로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葉石濤 문학관의 연장이자 완성이라 할 수 있다.

28) 「陳少廷先生的'臺灣新文學運動簡史'」, 『書評書目』53期, 1977.9.

29) 『臺灣文學史綱』(文學界, 1987), 23쪽.

30) 「論臺灣文學應走的方向」, 『中國論壇』12:3, 1981.5.

31) 『臺灣文學史綱』(文學界, 1987), 23쪽.

의 오사문학보다는 서구와 일본문학의 영향으로 근대문학이 탄생했으며[32], 중국경험을 가진 張我軍은 당시 보편적으로 일본유학을 했던 대만작가들과 다른 특수한 사례이므로 그의 조국정체성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33]고 하여 그 역할과 영향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1997년에 나온『臺灣文學入門』에서는 "1920년대부터 시작되어 이미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만문학은 복잡한 외부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았는데 그중 중국신문학의 영향은 매우 적다고 하겠다. 일제시기문학의 발전에서 일본문학의 자극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구미와 러시아문학사조의 영향이 있었다. 또한 해방 후의 대만문학은 어떠한 중국문학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 …… 대만문학은 세계문학의 일환이며 전 세계 인류의 문학 활동을 따라 발전해 왔다. 대만과 중국은 두 개의 다른 나라다. 제도와 생활관념, 역사처지와 문화내용이 분명하게 다르며 중국문학은 대만인에게 있어서 일본문학 혹은 구미문학과 같은 외국문학일 뿐이다."[34]라고 하여 대만문학의 중국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1940년대 황민화시기 문학에 대한 해석인데, 1990년대 이전에는 전쟁동원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 대만작가들이 침묵하지 않고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실패와 대만의 해방을 기다리며 저항정신을 표출했고 周金波(1920~1996)만이 식민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여 친일의 길로 갔다고 평가했지만,[35] 점차 파시스트의 강압 속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무런 자유도 없던 시대에 설령 정신적으로 '곡절되거나 경사된' 경향이 있었다고 해서 무슨 대역죄인으로 취급하면서 황민문학

32)「臺灣文學本土化是必然途徑」,『文學臺灣』4期, 1992.9.
33)「張我軍的民族認同」,『臺灣日報』, 1996.11.14.
34)『臺灣文學入門』, 春暉出版社, 1997, 8쪽.
35)『臺灣文學史綱』, 59-67쪽.

을 비판할 수 할 수 있겠는가[36]라고 변호하다가 1990년에는 "이후 일제시기의 대만문학 연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작가와 작품의 미학유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쟁기의 문학을 항의문학으로만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황민문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사실 황민문학은 그 자체로 시대의식, 사회변천요소, 작가의 가정배경 등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가능한 주제이다. 황민문학이 도대체 무엇을 표현했나? 왜 일본인에 영합했나? 이런 주제에 대해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周金波는 여러 황민문학을 썼지만 그의 문학예술은 매우 수준이 높은데 황민문학이라고 해서 지금껏 번역되지 않았다. 나는 이런 작품들이 번역되어 연구되기를 바란다."[37]라고 하여 면죄부를 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술성의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하자고 했다.[38]

대만인의 일본어 문학과 재대만 일본인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하였다. 대만작가의 일본어 창작은 언어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대만의 식민지상황으로 인해 1930년대 중반기부터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으로 해방 후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葉石濤는 일본의 풍부한 정보를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었던 매개체로 일본어 사용을 높게 평가하고 張文環, 呂赫若(1914~1950), 龍瑛宗(1911~1999), 楊逵, 吳濁流(1900~1976) 등 문인들을 들어 이들의 일본어 작품이 풍부한 대만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39] 재대만 일본인작가에 대해서는 "전체 일제시기 신문학운동

36) 「'抗議文學'乎? '皇民文學'乎?」, 『臺灣時報』, 1987.5.5.

37) 「我們是怎麼走過來的-日據時代作家座談會」, 『新地文學』1:3, 1990.8.

38) 특히 일본어 사용과 전쟁에 동원된 경험 등을 들어 대만문학 독자성의 증거로 들었다.

39) 「接續祖國臍帶之後-從四〇年代臺灣文學看'中國意識'和'臺灣意識'的消長」, 『中國論壇』289期, 1987.10.

사에서 일본인 작가의 참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어 시대에 특히 두드러진다. 일본인이 비록 외래의 통치 민족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작품이 반드시 통치의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만의 일본인 작가 중에는 좌익에 속하는 이도 있고 종족멸시의 식이 없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작품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식민지시대의 생활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역사의 문밖으로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그들의 역사적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다. 나는 일본인 작가의 작품과 문학 활동을 일제시기 대만신문학운동의 일환으로 반드시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40]라고 하여 대만문학의 속지주의와 일본인 작가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이는 (중국)민족주의의 잣대로 식민지시기문학을 평가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葉石濤가 건립하고 전파한 독립적인 대만문학론의 내용과 근거는 문답형식으로 구성된『臺灣文學入門』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시기 대만문학사의 주요논쟁을 모두 '대만문학 본토화의 과정'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가령 1920년대 초기 문화계몽운동의 일환이었던 신문학운동 당시 이미 '대만은 대만인의 대만'이라는 본토주장이 있었고, 좌익문학과 관련되는 臺灣民黨, 臺灣民衆黨[41]의 정치활동에서도 '대만인민 전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해'라는 문구가 있으며 臺灣共産黨[42]은 심지어 臺灣獨立을 강령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또한 1930년대 일어난 향토문학·臺灣話文논쟁은 대만문학 본토화와 母語文學으로의 회귀 주장이라고 해석했다. 해방 후

40)「研究日據臺灣新文學運動的盲點」,『自立晚報』, 1991.10.27.

41) 1927년 초기 계몽운동을 이끌던 臺灣文化協會가 좌우로 분열되자 우익계통의 지식인 林獻堂, 蔣渭水등이 성립한 정당으로 민본정치를 표방하고 경제와 사회조직의 합리화를 추구했다. 전신은 臺灣自治會, 臺灣民黨 등이며 1931년 2월에 해산했다.

42) 1928년 上海에서 성립된 臺灣共産黨은 당시 코민테른의 '한 국가에 하나의 당' 원칙에 따라 정식 명칭이 日本共産黨臺灣民族支部였다.

문학논쟁 역시 같은 맥락으로 재구성했다. 해방초기에 일어난『新生報·橋副刊』의 논쟁은 본토문학론과 중국문학론의 대립이고, 계엄기간에는 부득이 본토작가들에 의해 향토문학이란 이름으로 리얼리즘전통을 계승하였으며 1980년대에 와서야 본토문학이라 개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1970년대 향토문학논쟁 이후 黨外運動의 진전과 1987년의 해엄 이후 급속히 성장한 臺獨運動의 영향이 葉石濤의 생각에 변화를 초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문학사의 주요논쟁에 대한 자신의 기존 견해를 뒤엎고[43] 오로지 본토화라는 文學臺獨의 목적에 맞추어 새롭게 문학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재탄생한 대만문학은 일본통치시기의 신문학에서 1960년대『笠』詩刊,『臺灣文藝』[44]의 작가와 작품으로 이어졌고 1980년대 국민당체제에 대한 비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문학으로 그 전통이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모더니즘문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문학의 현실참여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1970년대 향토문학논쟁의 의제들을 고의로 간과 혹은 은폐한 것으로 목적지향의 문학사 해석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葉石濤는 향토문학논쟁에 대해 "국민당에 충성하는 구민족주의와 중공에 경사되어 있는 신민족주의에 속하는 두 진영의 작가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이다. 구민족주의 진영은 향토문학을 中共 工農兵文學의 복사판이라고 했다. 사실 이 두 진영의 작가는 모두 대

43)『臺灣文學史綱』에서는 1930년대 臺灣話文논쟁에 대해, 일어의 보급과 민중의 문맹률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며,「接續祖國臍帶之後-從四〇年代臺灣文學看'中國意識'和'臺灣意識'的消長」에서는 橋副刊논쟁에 대해 비록 양안 문인들의 대만문학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있었으나 省外작가와 省籍작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만문학이 가야할 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쟁이었고 이 논쟁을 통해 대만문학이 중국문학의 일환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44) 1964년에 창간된 이 두 문예지는 대만본토문인들이 주도하여 일제시기 대만문학의 계승을 모토로 내걸었다.

중국주의자들로 신민족주의 작가들이 제기한 향토는 대중국의 일환으로써의 지방색채일 뿐이다. 이 두 진영의 주장은 모두 본토를 중심으로 하는 대만작가들과 무관하며 그들은 모두 대만의 자주적 문학을 반대했다." 그리고 향토문학논쟁이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은 것을 두고 "國軍文藝大會에서 국민당 당국이 향토파인 신민족주의가 그들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소멸시켜야 하는 것은 대만의 자주적 문학을 건립하려는 본토작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45] 때문이라고 하여 역사적 사실과도 위배되는 주장을 했다.

문학사 이외 양안 간의 중요한 역사의제인 二二八事件과 1950년대의 백색테러리즘에 대해서는 "祖國大夢에서 깨어나 대만의 토지와 인민에 뿌리 내린 문학이 대만문학이라는 관념을 건립하고 대만문학의 독립성을 인식하게 하여 중국문학이 일본, 영국, 미국, 유럽문학과 동등하게 외국문학에 속한다는 관념을 갖게 만든 계기"[46]라고 하여 대만의식이 강화되는 전환점으로 파악했다. 葉石濤의 文學臺獨 추구가 정치적인 臺獨運動과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그가 제기한 '신대만인' 혹은 '대만민족'의 개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대만인은 중국인과 혈연적인 관련성이 희박한데 그 이유는 명청시기에 건너 온 대다수의 남성이 대만의 남도어족인 원주민과 혼인하여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인 혈통보다는 남도어족 혈통이 더 많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분리, 나아가 중국과의 무관함을 입증하고 이 견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文學臺獨論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특정 용어의 사용이다. 1970, 80년대의 평론에서는 '日據時期', '光復'으로 식민지시기와 해방을 언급했으나 1990년대에 오면 '日治時期'와 '戰後'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중국으로

45) 「臺灣文學導論」, 『臺灣新聞報』, 2001.3.5.-3.7.

46) 『臺灣文學入門』, 5쪽.

의 회귀사실을 소거하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葉石濤의 文學臺獨은 '대만의 중국문학'에서 '향토문학'과 '본토문학'을 거쳐 일국문학으로서의 '대만문학'을 건립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대만의식의 담보와 리얼리즘경향이란 문학적 기준은 종족, 기후, 풍토와 사회제도라는 문학외적 기준으로 변해갔고 이 기준에서 중국과 다름을 꾸준히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만문학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만민족과 대만문학론의 개념건립이 사실과 역사에 근거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국민당통치에 일방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피해를 보았다는 다분히 감정에 호소하는 유심론적 결론이며 심지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陳映眞의 文學臺獨과 臺獨運動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3. 陳映眞의 중국문학귀속론과 사회사 시각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에 태어나 鶯歌라고 하는 소읍에서 자란 陳映眞은 대학시절인 1959년부터 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하여 약 50년간 수십여편의 장, 단편과 문예평론집을 내놓은 작가이자 평론가이다. 모더니즘문학의 전성기였던 1960년대에 활동을 시작했으나 창작과 평론을 막론하고 현실적 소재로 역사와 현실을 천착한 리얼리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1980년대 창간한 보도문학 잡지『人間』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 문학적 필치로 사회현실과 진상을 보도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당시 활발하게 전개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文季』계열 문학잡지[47]와 비판성이 풍부한 좌익성향의 평론지『夏潮』(1976~1979)에 참여하면서

대만문학의 리얼리즘 지향을 이끌었고 향토문학논쟁의 당사자로 현대파와 반공파의 정치적 공세에 맞섰으며, 1980년대 이후 文學臺獨과 정치적 臺獨運動에 직면해 대만문학의 중국민족귀속성 강조, 식민역사에 대한 반성촉구, 냉전시기 대만사회와 문학에 대한 이해요구와 臺獨運動의 이론적 착오를 지적하며 시종일관 선봉에 섰다. 1968년 臺灣民主聯盟사건[48]으로 7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그의 사상적 지향은 사회주의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陳映眞은 양안의 사회성격과 각 시기에 직면한 역사의제가 근대초입부터 줄곧 동일했다는 데서 출발하여 이를 반영한 대만문학은 '대만지역에서 생산된 중국민족문학'이란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평화적 수단을 통한 중국통일을 평생 동안 지향하고 실천했다. 50여년간 이어진 대만문학 평론활동으로 남긴 문장은 양적으로 너무 많아 정리가 쉽지 않지만 크게 모더니즘문학에 대한 비판과 리얼리즘 지향, 향토문학의 민족성, 민중성, 현실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 식민지시기 문학의 발굴과 평가 작업, 제삼세계문학에 대한 이해와 민중기초의 민족문학 건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文學臺獨은 물론 정치적 臺獨運動의 관점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1950, 60년대 모더니즘문학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다. 陳映眞이 등단하여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인 1960년대의 대만문학 주류경향이

47) 『筆匯』革新號(1959), 『文學季刊』(1966), 『文學雙月刊』(1971), 『文季』(1973), 『文季文學』雙月刊(1983)의 연속성을 가진 간행지로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 전환되는 대만문단의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1970년대 향토문학을 선도한 잡지로 평가받고 있다. 尉天驄, 王夢鷗, 何欣, 姚一葦, 陳映眞, 黃春明등의 평론과 창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48) 1968년 7월 31일 백색테러리즘시기에 발생한 정치탄압사건으로 陳映眞, 李作成, 吳耀忠, 陳述孔, 丘延亮 등이 주대만일본대사의 외교우편을 이용해 좌익서적을 대만으로 들여와 독서회에서 열독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당시 국민당정부는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죄목을 씌워 36명을 체포했다.

모더니즘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53년부터 三大詩社[49]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시문단은 서구의 19세기말 상징주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각종 모더니즘사조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고 1960년대 초에 나온『現代文學』[50]과『筆匯』등 문학잡지도 서구의 현대파 작가와 작품을 대량으로 소개하면서 모더니즘소설이 생산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陳映眞의 평론활동은 이러한 문단상황에 대한 비판과 리얼리즘 경향의 향토문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부터 시작되었다.「期待一個豐收的季節」[51]에서 허무(nihilism), 背理(absurdity), 추악(ugliness)과 비인간화(dehumanization)를 주요본질로 하는 모더니즘문예가 대만에서 共鳴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고전문학이나 1930년대 문예정신 및 항일, 민족주의와 絕緣된 대만의 젊은 세대들이 극도로 공허한 마음과 빈약한 정신을 이에 투사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문제는 대만의 현대시에 모더니즘사조의 본질인 기존질서와 가치, 공업화가 개인에게 가한 획일성에 대한 반항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즉 반항의 제스처만 있을 뿐 반항의 대상이 없는 피상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분노어린 반항이 사실은 사춘기 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공포, 불안, 분노와 조울증의 일부분이며 현대파문예는 그러한 표현형식을 취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약간은 지나친 편견"을 피력했다. 이어 楊牧(葉珊, 1940~2020)의 시를 평가하는 문장[52]에서 "모더니즘문예는 근본

49) 1950년대 초기에 결성된 현대시단인 現代詩社(1953), 藍星詩社(1954), 創世紀詩社(1954)를 말한다.

50) 1960년 3월 白先勇을 위시한 당시 대만대학 영문과 재학생들이 창간한 잡지로 한 차례의 휴간을 거쳐 1983년 9월까지 20여 년간 73기가 발간되었다. 대만 모더니즘문학의 발전을 이끈 중요잡지로 평가받고 있다.

51) 許南村(1967.11.),「期待一個豐收的季節」,『草原雜誌』創刊號.

52)「打開幔幕深垂的暗室-兼以反論葉珊的'七月詩'」,『陳映眞全集2』(人間出版社, 2017), 245-260쪽.

적으로 무슨 대학의 수재나 비상한 천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수단이 아니다. 모더니즘은 병리적인 현대생활이 가져온 현대인들의 병리반응을 예술과 문학의 범위에서 표현해낸 일종의 징후(symptoms)이다."라면서 문제는 대만이 서구적 의미의 '현대화'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설령 선진국의 영향으로 경제, 공상업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선천적인 부족으로 인해 그 결과물인 모더니즘문예도 아류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① 문예가 새로운 인도주의로 萬民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량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빈혈, 괴벽, 소침한 프티 인텔리와 속악한 중산계층의 손에서 해방되어 광대한 군중의 사회생활에 영원한 양식이 되어야 한다. ② 중국신문학은 중국민족의 운명과 같이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신념을 회복하여 이지적이고, 소박한 열정으로 우리 민족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③ 우리 민족의 문예가는 자신을 '세계적', '초민족적' 작가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생활 속 군중을 위해 부르는 한 곡의 노래, 하나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사소한 즐거움, 고난, 소망, 분노와 환상을 표현해 주어 끊임없는 생활의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감동과 위안과 격려와 꿈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문학관을 표출한 것이다.

이렇듯 초기 평론에서 모더니즘문학의 탈민족, 탈민중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현실과의 교섭, 민중의 생활과 감정의 반영이라는 리얼리즘 지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향토문학의 옹호로 이어지며 1972년의 현대시논전과 1977년 향토문학논쟁을 연결선상에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현대시논전은 1970년대 초기의 대내외적 위기가 불러온 향토와 민족으로의 회귀경향이 문단에 반영된 것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창작되기 시작한 黃春明(1935~), 王禎和(1940~1990) 등의 리얼리즘 향토문학이 보여준 무한한 가능성의 기초에서 당시 문단에 만연해 있던 모더니즘문학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현대시의 국제

주의, 서구주의, 형식주의와 內省편향, 주관주의에 대해 문학의 민족귀속, 사회성을 중시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애국과 민족주의의 길로 가야하며 개인의 내면갈등보다 한 시대, 한 사회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현실생활에서 소재를 찾아 전형적인 인물의 목소리로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는 향토문학의 현실지향과 반서구화 경향이 대만문학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나온 향토문학논쟁 당시의 중요한 문장 「文學來自社會反映社會」[53]는 陳映眞의 대만사회와 문학예술에 대한 견해의 집약본이라 하겠다. 문학은 모든 인류의 정신생활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역사와 사회에서 영향을 받아 '시대정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데서 출발하여 해방 후 30년 동안의 대만사회와 문학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1953년에서 1965년까지 진행된 미국의 경제원조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점을 제기하며 대만은 일제시기인 1930년대 태평양전쟁의 남진기지로 인식되어 일본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규모 있는 공업화가 진전되었으나 이차대전 말기 연합군의 폭격과 경제봉쇄, 통화팽창 등 요인으로 거의 궤멸되다시피 했고 광복 후 국민정부가 접수했을 당시는 거의 파산수준에 이르렀지만 기본적인 공업시설과 工程은 여전히 잔존해 있었다. 이차대전후 미국은 대공산권 전략의 일환으로 경제를 안정시켜 좌익세력의 성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상품의 구매능력을 갖춘 시장으로 대만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적 원조는 물론 현대화와 발전모형까지 설계했다. 이 기반 위에서 公營事業부터 천천히 성장을 해 나갔고 한국전쟁(1950~1953)과 베트남전쟁(1955~1975)을 거치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대만인의 경제생활은 미국의 자금, 기술, 자본, 정책과 상품의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1965년 미

53) 『仙人掌』5號, 1977.7.

국의 경제원조가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당시 대만경제는 비록 '자립'을 이루어 초보적인 생산과 상당한 구매력을 갖추었으나 미국은 또 다른 방식, 즉 투자를 통해 미국자본의 공장을 설립했고 일본도 이에 합세해 美日의 자본, 기술, 상품이 대만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미일의 자본과 기술의 절대적 지배가 대만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특징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사회 전반에서 서구화 혹은 서구영향을 받은 일본의 영향이 독보적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치사상에서 黨外運動의 기관지인 『自由中國』이 추구한 서구의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의 가치, 사상적 측면에서 『文星』잡지로 대표되는 개인주의 중시, 권위에 대한 회의와 반항, 나아가 전면적인 서구화[54]를 미래 방향으로 제시한 것, 영어와 서구이론으로 도배된 그야말로 '서구에의 종속화'가 심각했던 학술장, 그리고 영미문학과 작품, 서구예술문화의 소개로부터 전면적인 학습과 모방으로 치달았던 문학장[55]에 이르기까지 지식계 전반을 서구사상과 문화예술이 휩쓸었다. 이러한 사회전반의 '崇洋媚外'현상은 대만경제가 전면적으로 서구에 종속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추세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향토문학이 대두되면서부터라고 陳映眞은 진단했다. 리얼리즘경향의 이른바 향토소설은 전면적인 외래경제와 문화의 지배하에 있는 대만의 향토와 인민의 곤경을 반영하면서 더 이상 서구에서 수입한 형식과 정감에 기대지 않고 작가들이 직면한 대만의 현실사회와 생활 속의 사람을 묘사했다는 것이다. 반공주의자와 현대파에 의해 좌익경향성과 예술성 부족이란 공격에 맞서

54) 『文星』에서 李敖 등이 제기한 '全盤西化'론으로 중국의 사상체계를 바꾸기 위해 설령 서구의 나쁜 것도 불사하겠다는 과격한 주장을 했고 이에 胡秋原, 劉述先등이 비판하면서 中西文化論戰(1962)으로 이어졌다.

55) 『文學雜誌』(1956), 『筆匯』革新版(1959), 『現代文學』(1960) 등이 대표적이다.

陳映眞이 구축한 현대파에 대한 비판과 향토문학의 옹호는 당대 대만사회와 경제구조의 분석에 기초한 리얼리즘문학론인 동시에 중국문학에의 민족귀속이란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광복 후 30년간의 대만문학에 대한 이 평가의 기조는 차후 이론적인 정밀함을 더해가면서 2000년대까지 일관되게 이어졌다. 가령 미국의 경제원조와 극단적 서구추종의 관계 이외에도 국공내전-국제냉전의 이중구조가 가져온 반공이데올로기의 과도한 지배, 신흥공업화경제증후군(NIEs syndromes)의 대만문화 영향 등의 측면에서 더욱 세밀하게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 교체되는 1950~70년대의 대만사회와 문학을 분석했다.[56]

1970년대 초 대내외 위기의식의 소산이 향토문학의 중시로 이어진 것인데 이 시기 문화전반에 일어난 민족회귀, 현실회귀경향은 자연스럽게 과거 식민지시기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자료발굴과 연구열이 생겨났다. 陳映眞 자신의 관련문장 뿐 아니라 그가 참여한『夏潮』와『文季』계열 잡지에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57]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리면, 1895년 일본에 할양된 대만사회는 식민지화의 개조를 겪었다. 대만의 士紳과 농민은 무장저항에서부터 문화, 정치적 저항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대항을 했다. 七七사변(1937) 후 일본당국의 대만에 대한 지배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항적 문학, 문화와 정치운동은 전면적으로 제한되고 강력한 탄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皇國民文學을 강제하며 총독부에 의해 사회전반에 황민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역사변천으로 인해 식민지시기 사조는 크게 황민주의, 일본제국

56) 이와 관련된 문장은 너무 많아서 모두 열거하기 어려운데 대표적인 것으로,「人性·社會·文學-陳映眞談 臺灣小說的發展傾向」,『南洋商報·文林版』, 1981.5.10; 趙定一,「美國統治下的臺灣-天下沒有白喝的美國奶」,『夏潮論壇』15期, 1984.6;「兩岸文化交流和國土的統一」,『中華雜誌』28:324, 1990.7. 등이 있다.

57) 본토문학진영으로 알려진『臺灣文藝』,『笠』도 식민지시기 문학을 발굴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의 확장주의, 대동아공존공영주의 같은 지배자의 사조와 이에 대립하는 대만인민의 민족저항운동-지식인에 의한 사상계몽운동과 식민지배구조에 저항하는 농민, 노동자, 학생운동-에서 보이는 반봉건주의와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사조, 그리고 지배자의 사조와 호응한 漢奸主義와 投機主義로 구분된다. 문학 역시 천황제를 옹호하고 일본군사제국의 확장정책에 헌신하면서 皇國史觀과 皇民觀을 칭송하는 황민문학과 이에 저항하는 대만인민의 저항문학으로 크게 나누어진다.[58] 민족주의를 기준으로 상당히 명료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중 대만인의 저항문학을 '前行代의 저항적 민족문학'으로 명명하고 민족성, 민중성, 현실성을 갖춘 향토문학의 前史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근대중국의 제국주의에 저항한 역사를 강렬하게 표현한 명확한 역사의식, 당시의 가장 첨예한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의 제 문제에 직면하여 도피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고 용감하게 저항하면서 표현해낸 존엄성, 강렬한 혁신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리얼리즘의 채택 등 세 가지에 측면에 주목했다.[59] 동시에 양자가 직면한 역사현실의 차이로 인해 달라진 문학과제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즉 식민지시기에는 제국주의의 압박이 製糖工業을 통한 착취와 地主, 士紳 등 지방봉건세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가해졌으므로 반제, 반봉건의 주제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면, 향토문학의 시대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제국주의가 더 이상 總督, 文官, 독점자본의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정치간섭, 경제통제, 기술독점, 상품판매, 문화침투의 방식으로 낙후된 국가를 압박하여 저항이 생겨나는데 黃春明(1935~)과 王禎和(1940~1990)의 소설인 「莎喲娜啦·再見」, 「小林來臺北」에서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에

58) 「四十年來臺灣文藝思潮之演變」, 臺灣史研究會主辦,『鄉土文學論戰十週年之回顧演講會』, 1987.5.16.

59) 「文學來自社會反映社會」,『仙人掌』5號, 1977.7.

대한 자발적 항의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반봉건의 주제는 광복 후 30여 년의 자본주의화 과정으로 인해 봉건이데올로기가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주류적 경향에서 배제되었으나 여전히 사회기저에 남아 문학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대만문학은 이차대전 전과 후를 막론하고 전체 중국신문학과 동일한 주제의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60]

이어 陳映眞은 향토문학의 민족성, 민중성, 현실성의 특질을 대만문학(중국문학)의 핵심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1980년대 초반부터는 제삼세계문학과의 공통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중국과 단절된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중국의 반공우선정책이 시행되었고 1960년 이후 더욱 세계냉전체제의 地緣政治 하에서 미국의 원조와 미국, 일본, 대만의 삼각무역구조에 힘입어 가공수출로 일정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대만의 관료와 서구 현대화에 심취한 지식인 엘리트들은 이러한 대만의 발전을 자유, 민주의 가치로 선전해왔다. 그들에게는 미국만이 모든 분야의 기준이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제삼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 아니라 자신을 절대로 빈궁낙후한 제삼세계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았다.'[61] 이렇게 제삼세계에 대한 극단적 무지를 보였던 대만의 지식계에서 陳映眞이 제삼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76년 일본어를 통해 한국문단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당시 한국에서 진행되던 순수문학과 참여문학논쟁이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중문학과 민족문학의 논의로 확대되었는데 문학의 민족성과 대중성을 논할 때 식민지, 반식민지, 신식민지 처지에서 민중(즉 민족의 구성분자)의 해방, 국가의 독립을 위해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즉 제삼세계와 그들 문학의 투쟁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

60) 「鄕土文學·民族主義·帝國主義」, 『大學雜誌』119期, 1978.11.

61) 「對我而言的'第三世界'」, 『人間思想與創作叢刊9·815-記憶和歷史』, 2005.9.

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1978년 해외 保釣애국운동의 좌익논단에서도 제삼세계라는 용어와 개념이 등장했으나 대만당국의 검열로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지만 자신은 관련서적을 통해 제삼세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서구인들은 생산방식을 기준으로 자유경제공업화국가(발달자본주의국가)를 제일세계로, 사회주의국가를 제이세계로,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를 제삼세계로 보는데 이는 이데올로기 색채가 농후한 방식이고, 이에 비해 1950년대 중간지대론으로부터 점차 발전해 온 毛澤東(1893~1976)의 3개의 세계론은 美蘇초강대국을 제일세계, 공업이 발달한 국가를 제이세계, 기타 국가를 제삼세계로 분류하는데 毛澤東에게 있어서 제삼세계는 빈궁, 낙후, 약소, 질병, 전쟁의 동의어가 아닌 공동으로 미소패권에 반대하는 나라들이라는 의미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 즈음 이론을 떠나 실제로 제삼국가의 개념을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1983년 처음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국제작가 워크숍에 3개월간 참가한 것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중국대륙에서 온 작가들과 만났음은 물론 흑백종족 격리통치 하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필리핀에서 온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각국상황과 문학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1991년 일본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좌파회의인 People's Plan for the 21st Century(PP21)에 참가했을 때 겪었던 서방국가의 자본주의관점의 문제와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한국 인사들과 교류경험을 통해[62] 더욱 피부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다.[63]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만지식계에서 제삼세계문학에 대한 이해를

62)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일방적 비판을 담은 결의문에 대해, 陳映眞은 좌파의 분석과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 인사들도 한국학생반독재민주화투쟁과 천안문사태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한다.

63) 「對我而言的'第三世界'」, 『人間思想與創作叢刊9·815-記憶和歷史』, 2005.9.

촉구해 왔는데 중국(대만)과 제삼세계, 중국문학(대만문학)과 제삼세계 문학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1980년대의 상황에서) 대만의 사회와 경제는 국민소득, 국제차관, 경제구조와 빈부차이 등의 지표에서 제삼세계국가들보다 양호하지만 세계분업과 국제적 생산관계로 보면 선진국에 의해 자금, 기술, 시장과 문화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제삼세계국가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 또한 역사발전과 문학적 대응이란 측면에서도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문화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형성, 발전하게 된 근대문학, 장기간의 식민체제에서 민족 언어와 문학이 심각한 억압을 받았고 이차대전 이후에도 오랫동안 서구 '현대' 문학의 모방시기를 보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야 새로운 반제국주의 애국운동으로 민족회귀운동이 일어났다는 점 등에서 제삼세계국가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비록 오랜 피식민지배로 인해 언어와 민족문화까지 잃어버린 나라(예를 들어 필리핀)와 비교할 때 대만은 비교적 완전한 민족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가파른 대중소비사회의 형성으로 인해 문학과 민중생활의 밀접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과의 분단상태가 초래한 사상적 단층과 장기간의 검열이 가져온 역사, 문화와 철학의 빈곤(특히 이차대전 이후 문학의 정치회피)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제삼세계(문학)을 통해 대만(문학)을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64]

陳映眞이 대만 지식계를 향해 세삼세계와 문학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 것은 자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서 문학의 방향을 서구가 아니라 자기민족으로부터 찾기 위해서였는데 그중 한국사회와 문학은 그에게 이런 인식을 심화시키는 참고자료였다. 그가 남긴 한국사회와 문학에 관한 상당량의 문장이 이를 증명하는데 참여문학론, 민족문학론, 노

64) 「中國文學和第三世界文學之比較」, 『文季文學雙月刊』1:5, 1984.1.

동문학론 등 1960~80년대 한국문단의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체론, 분단체체론 등 한국 지식계의 동향과 학생운동, 민중신학, 노동운동 등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65] 또한 1987년 직접 서울로 가서 6월항쟁을 지켜보고 각계의 한국인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으며[66] 김석범(1925~), 이청준(1939~2008), 황석영(1943~) 등 작가와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도 보여주고 있다.

내전과 냉전의 이중구조에서 형성된 모더니즘문학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미일 신제국주의에 종속된 대만사회의 본질과 구조를 제삼세계라는 매개를 통해 인식하고 이 기초에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사유하던 陳映眞은 1980년대 이후 文學臺獨과 분리주의 臺獨運動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시작한다. 그는 엄청난 량의 저작을 통해 시종일관 중국문학의 범주에서 대만문학의 역사와 속성을 해석하고 臺獨派의 논리를 반박했을 뿐 아니라 실제 중국을 왕래하며 평화적인 중국통일을 위한 활동에 투신했다. 몇 가지 의제에 국한시켜 文學臺獨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분리주의 문학에 대한 첫 비판은 향토문학논쟁 당시 葉石濤의 「臺灣鄉土文學史導論」에 대응한 「'鄉土文學'的盲點」에서였다. 전자가 식민지시기 일본의 자본주의 개조에 의한 변화, 즉 일종의 근대화, 도시화, 시민계급화한 대만(인)을 여전히 봉건적 농촌사회에 머물러 있는 중국과는 다른 '대만입장'과 '대만인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그 자본주의 개조의 실체라는 것이 일본제국주의 경제에 종속된 것으로 대만의 토지자본가와 漢奸投機세력들에게는 경영과 관리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광대한 농촌사회에서는 여전히 중국의식이 완강

65) 2017년에 人間出版社에서 나온 총 23권의 陳映眞全集 중 제11권은 모두 한국에 관련된 문장이 수록되어 있고 그밖에도 상당수의 한국문학관련 문장이 있다.

66) 「肅穆的敬意」, 『中華雜誌』25:289, 1987.8.

하게 자리하고 있었으며 도시의 중소자본가계급들이 주도한 항일계몽운동이 모두 중국인의식을 내세운 민족해방노력이었음을 들어 당시의 대만문학은 전체 중국의 반제, 반봉건의 근대문학 성격에 통일되어야 한다고 했다. 해방 후의 대만문학 역시 비록 정치로 인한 역사적 단층으로 문학, 사상에서 1949년 이전 발생한 중국의 사회사논쟁, 사회성질논쟁, 과학과 玄學논쟁 등과 연결되지 못했고 미국과 긴밀한 맹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심지어 문화적 측면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1950, 60년대 전면적인 서구화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단 한 편의 문학작품 속에서도 절대로 '중국인'이 아닌 한 '대만인'이 자각적으로 대만민족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번도 중국문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일관적으로 중국지향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따라서 葉石濤가 말하는 향토문학은 미국경제원조와 함께 성장한 대만토착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현상으로 소설형식으로 자신들에게 익숙한 사람과 사물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어느 정도의 지방성과 특수한 면모를 거론할 수는 있겠지만 '대만인의식'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67]

이 문장을 기점으로 이후 臺獨派들에 의해 제기된 민족, 역사, 사회, 문화에서의 대만 독자성과 대만문학 자주성의 구축에 증거로 인용된 문학사의 여러 의제들에 대해 하나씩 반박해 나갔다. 일제시기 신문학형성기의 오사문학영향, 1930년대 대만화문논쟁의 성격, 전쟁기의 황민문학과 재대만 일본인작가에 대한 평가, 1947년『新生報·橋副刊』논쟁의 쟁점, 향토문학의 前史로 언급된 본성인 작가들의 소설경향[68], 1970년대 향토문학논쟁 등에 대해서 葉石濤의 의견을 반박하고 중국문학의

67) 「談'臺灣人意識'與'臺灣民族'-戴國輝·陳映眞愛荷華對談錄」,『臺灣與世界』8-9期, 1984.2-3.

68) 이에 대해서는 '소박한 리얼리즘'문학으로 평가했다.

범주로 편입시켰다. 그의 반박은 각 역사시기 대만과 중국의 분단/통일 관계를 기준으로 대만사회에 존재했던 민족억압 요인과 계급모순의 구조와 본질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624년부터 1661년까지의 荷據(네덜란드 점거)시기 대만은 식민지사회이자 유럽식 봉건사회로 통치계급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로 대표되는 외국 상업자본과 이들의 대리통치자인 한족과 원주민 장로계급이고 이들이 實物, 地租, 徭役 및 농, 수렵상품의 탈취와 무역을 수단으로 대만본토와 중국연해지방에서 건너온 소농을 착취하는 구조였고 이 시기의 대만은 식민지화되어 중국과 분리된 상태였다. 1661년부터 1683년까지의 明鄭시기 대만은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정씨왕실에 의한 호족봉건제의 실시로 경지를 통한 생산과 나아가 대외무역이 행해졌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시기는 청정부에 의해 제어당하는 사회로 통치계급은 정씨왕실, 귀족, 군사통치자이며 이들이 본토와 중국이민으로 이루어진 빈농계급을 지배하였고 중국과의 관계는 잠정적 분리 상태였다. 1683년부터 1840년까지 明鄭의 멸망부터 아편전쟁까지의 대만사회는 비교적 큰 변화가 생겨났는데 청에 편입된 후 이민의 증가로 인구집중과 봉건경제의 비약적 발전으로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텄으며 상품성 있는 농작물의 대량생산으로 양안무역이 발전하면서 길드(Guild)형태의 민간사업조직이 생겨났다. 하지만 동시에 부패한 관료와 士紳들에 대한 인민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이 시기의 대만은 청조와 통일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1840년 아편전쟁이 끝난 이후 1895년 일본으로 할양되기까지 대만은 중국대륙과 함께 근대 제국주의열강의 침략을 받았으며 굴욕적인 패전과 불평등조약으로 중국은 독자적인 자주성을 상실하고 서구열강의 먹이가 된 半식민지, 半봉건사회 상태였다. 제국주의열강은 불평등조약을 통해 무역항의 강제개방, 토지점유, 자본과 근대 상업조직, 관리수단을 이용해 전면적으로 대륙과 대만의 대외무역을 통제하였으

며 외국상업자본의 높은 이자로 인해 매판계급이 흥기하였다. 당, 엽차, 장뇌와 같은 대만의 농산품이 국제무역상품이 되어 관민기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통치계급인 제국주의자본, 봉건지주, 관료자본, 매판자본과 상업조직자본이 대다수의 농민, 엽차농, 장뇌업, 제당노동자를 통치했다. 이시기의 대만은 국가관계에서 반식민지화된 중국에 통일되어 있었다. 1895년부터 시작되는 일제시기는 총독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완전한 식민지로의 전락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일본은 米糖단일경제를 통해 대만을 지배했고 일본독점자본과 대만본토 대지주가 통치지위를, 빈농과 소작농, 소수의 근대노동자, 수공업자, 중산계급이 피통치계급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식민지 모순 하에서 전근대와 근대적 반제투쟁이 많이 일어났고 1920년대 이후 농공계급을 기초로 하는 민족, 계급운동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반제민족민주운동의 전통을 이어나갔다. 1945년 일제가 붕괴됨에 따라 대만은 반식민지반봉건 속성의 중국사회로 조직되어 양안이 통일관계를 이루었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이 원조를 앞세워 경제, 정치, 외교, 문화전반에 개입하면서 대만은 신제국주의의 신식민지로 다시 전락하였고 현재까지 중국과 분단된 상태이다.[69]

陳映眞의 이러한 분석은 중국과의 분단 상태가 항시적이 아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 시기 대만사회의 계급구조와 민중의 동향에 관심을 둘 것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특히 臺獨派들이 강조하는 식민지시기와 이차대전 후의 대만사회, 즉 일본식민지배와 국민당의 통치로 인해 중국과 별개의 대만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즉 대만의 식민지화는 원래 독립적인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는 방식으로의 식민지화이다. 따라서 반식

69) 「臺灣史瑣論」, 『歷史月刊』105期, 1996.10.

민지투쟁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조국으로의 복귀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립파들이 말하는 일제시기 臺灣共産黨의 1928년 강령에 나와 있는 대만공화국 건립, 대만독립의 구호는 ①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민족과 계급의 해방이 목적이며 이는 당시 코민테른의 지도방침이었고 ② 광복 후 대만공산당은 중공과 다른 공산당을 만들지 않았으며 1947년 228이후 대만의 민주와 자치, 반미제국주의 간섭에 반대하여 신탁통치와 대만독립을 반대하는 투쟁을 했고 ③ 1949년 이후 이들은 모두 신생중국으로 들어갔으며 단 한명도 일본으로 가서 대만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만독립론과의 연결을 차단했다. [70]

광복 후에 일어난 二二八사건에 대해서도 대만의식 형성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는 臺獨派와는 달리 陳映眞은 이 동족상잔의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국민당정부의 중국대륙에서의 통치실패를 들면서 이러한 대국민진압이 1949년 이전의 중국에서 흔히 일어났고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매판적, 봉건적 정권에 의한 인민살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진압과정에서의 잔인함과 중국민족단결을 파괴한 것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일본의 통치와 비교하여 省籍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는 1950년대 백색공포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정치숙청에 대해서 진상파악과 추모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또한 독립파들이 강조하는 본성인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차별[71]은 있었지만 이를 전체 외성인, 나아가 중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당정부의 대만철수는 국공내전의 실패와 미국의 전세계 반공산주의전략에 의한 것이며 바로 이런 원인으로 인해 대만주민에 대해 강

70) 「臺灣史瑣論」, 『歷史月刊』105期, 1996.10.

71) 黨政의 요직과 각급정부의 재정과 병역부문 공무원으로 본성인을 기용하지 않거나 영화, 텔레비전에서 대만말 금지 등 정책을 말한다.

제적인 통치와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72] 하면서 이를 중국내전과 국제냉전의 이중구조로 설명했다. 즉 국민당정부는 대륙의 중국인에게 부정당한 구정권이며 대만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대표성도 가지지 못하고 무력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였는데 이차대전후 냉전체제 하 자유진영으로 편입되어 미국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광복 후의 대만사회의 구조를 본성인과 외성인으로만 구분해서는 안 되며 미일제국주의자본, 매판적 관료자본주의계급, 국민당과 결탁한 대만본토독점자산계급이 핵심적 통치계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臺獨派들에 의해 원흉으로 지목받는 黨政軍特은 이 통치핵심을 위해 복무하는 행정단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외성인의 본성인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이러한 대만의 사회계급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1980년대 이후 대두한 臺獨運動은 자산계급의 정치이데올로기일 뿐이며 이들이 내세운 反中, 反華 구호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陳映眞의 견해이다.[73]

한걸음 더 나아가 陳映眞은 대만독립주장의 배후 조력자로 미국을 지목했는데 이차대전 후 미국의 패권주의와 신식민주의가 중국내정을 간섭하고 대만해협을 무장 침범하여 중국의 변혁운동을 억제, 파괴했다는 점과 1949년 廖文毅(1910~1986)의 활동[74]을 예로 들면서 대만독립운

72) 趙定一(1986.4), 「臺灣的殖民地體質-也談臺灣的過去與未來」, 『夏潮論壇』53期

73) 陳映眞의 대만독립주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臺灣'分離主義-知識分子的盲點」(『遠望』創刊號, 1987.3)에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주요내용은 臺獨派들이 ① 온 마음을 다해 식민자의 이미지로 자신을 개조하려 하고 ② 일본인 혹은 미국인 중심의 관점으로 자기 민족을 원수 보듯 멸시하며 ③ 비체계적, 비논리적인 폭론과 괴설로 ④ 대만역사에서의 중국귀속과 중국에의 의지를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⑤ 이는 사실 미일제국주의의 경제, 정치와 문화에 의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요약했다.

74) 廖文毅는 1947년 二二八事件이 일어나기 전에는 聯省自治를, 그 이후에는 대만독립을 주장한 臺獨政治運動의 선구자적 인물로 중국민족과 다른 臺灣人民族(혼혈로 형

동이 초기부터 미국의 중국에 대한 패권주의, 반공봉쇄, 냉전대치의 대전략 위에 구축된 것임을 상기시켰다.[75] 이러한 견해를 통해 반중국을 지향하는 대만독립운동이 결국은 미군의 대만진주와 군사간섭에 찬성하는 등 미제국주의에 이용될 위험성과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76] 그런데 미국의 반공패권주의는 이차대전후 일본의 동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 이후 미소대립이 격화되자 미군정은 일본의 전쟁세력인 재벌, 군부, 군국주의정객, 천황제 등을 궤멸시키는 원래의 목적을 포기하고 파시즘세력을 반공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을 위시해 과거 일본군국주의의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협정을 통한 반공산세력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이 지역 국가들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묻지 못하게 만들었고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도리어 일본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우익국가주의 정책이 대만에서 높은 호감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대만독립운동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77] 동시에 臺獨運動이 자신의 피를 멸시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민족성 부정, 식민지의 모어수탈과 같이 공용어를 부정하는 閩南語쇼비니즘, 극단의 반공주의 등에서 전쟁시기의 황민화운동을 연상시킨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78]

성)입장을 내세우고 중국에 대해 종족주의적 언행을 했다.

75) 「鄕土文學論戰十週年的回顧」, 『海峽』創刊號, 1987.6.; 「祖國喪失和白痴化-答覆李喬論臺獨的'反中國·反民族'和'新皇民化'性質」, 『自立晚報·本土副刊』19版, 1991.2.7.-8.

76) 釣魚台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능한데, 원래 중국영토였지만 이차대전후 미국이 반공전략 필요성에 따라 군사적으로 점령했다가 오키나와와 함께 일본에 반환하였기 때문이 일본과의 영토분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독립파들은 釣魚台분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77) 「愛國統一戰線」, 『臺灣日報·台時副刊』27版, 1990.11.1.

78) 「祖國喪失和白痴化-答覆李喬論臺獨的'反中國·反民族'和'新皇民化'性質」, 『自立晚報·本土副刊』19版, 1991.2.7.-8.

이렇게 陳映眞의 대만문학론은 중국민족귀속성의 원칙에서 민중생활의 직시를 통해 민족과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파악하려는 지향을 보여주었고 이 기준에서 각 역사시기의 사회구조와 계급관계, 근현대 제국주의의 본질과 영향, 문학의 현실반영 유무를 고찰하고 文學臺獨과 정치적 臺獨運動을 비판했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 1988년 中國統一聯盟의 결성으로 실천에 옮겨졌으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생 대만과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4. '대만문학'의 두 갈래 길

이상 葉石濤와 陳映眞의 문학평론을 중심으로 대만문학의 統獨論爭 관련쟁점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시기문학을 포함한 각 시기의 문학뿐 아니라 대만의 역사와 사회성질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문학이 어떤 방식으로든 민족의 역사현실과 민중의 사회생활을 반영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문학주장을 통해 '대만'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가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술했듯이 대만의 문학장에서 統獨論爭이 부상한 것은 1970년대 후반기였다. 문헌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1977년 향토문학논쟁 당시 葉石濤가 제기한 대만향토문학의 '대만입장'과 '대만의식'이 그 시작점이었다. 이에 대해 陳映眞이 곧바로 분리주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당시 논쟁의 주요쟁점이 해방 후 20년간 발전해 온 모더니즘문학의 과도한 서구추종경향이 가져온 민족, 현실과의 유리현상에 맞추어져 있었고 葉石濤 역시 대만문학의 중국귀속성을 인정했기에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했다.[79] 그러나 이 불씨는 곧바로 1979년 美麗島事件을 분수령으로 黨外運動과 결합하게 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 邊疆文學論爭[80]

‘대만작가의 지위문제’에 관한 토론[81] 등을 거치며 점차 중국과의 분리, 대만문학 자주성을 강조하는 추세가 강해졌다. 특히 1987년 해엄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가해졌던 제한이 풀리자 文學臺獨은 政治臺獨運動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이전까지는 문학의 주체와 내용, 지향점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 분리되어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대만문학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1987년 이후 1990년대에 이르면 臺獨運動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만본토중산층의 정치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보다 포괄적인 내용[82]과 체계성을 갖춘 대만문학론과 문학사건립 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2000년대 民進黨의 집권과 함께 여러 대학에 대만문학과와 대학원과정이 신설되어 교육시스템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렇듯 중국과는 다른 역사체험, 본토경험의 문학반영에 초점을 맞추던 대만문학론이 점차 독립된 국가문학으로 건립되어 가는 과정은 국민당통치를 비판하던 黨外運動이 정치적으로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臺獨運動으로 발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광복초기 접수정권의 부패와 二二八비극의 발생으로 양안 인민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1950년대 초 미국이 당시 냉전의 필요에 의해 제기한 臺灣中立論

79) 훗날 文學臺獨派로 불리는 본토작가들은 이 논쟁에 참전하지 않았다.

80) 1981년 평론가 詹宏志가 문학상 심사의견에서 만약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만문학은 중국의 한 邊疆文學밖에 될 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하자 彭瑞金, 高天生, 李喬 등이 ‘대만문학의 독특한 역사성격’을 강조하며 본토성, 자주성, 탈중국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81) 1987년 독일에서 개최된 ‘중국문학의 大同世界’ 세미나와 관련해 ‘대만작가의 위치’ 논쟁이 일어나자 李敏勇, 向陽, 羊子喬, 劉天風, 林宗源등은 대만문학은 ‘대만경제생활공동체’만 반영하면 되고 대만문학 중의 중국은 일종의 ‘허구’와 ‘허위’이며 대만문학은 일찍이 정치보다 먼저 ‘독립’을 취득했으며 마땅히 ‘대만인해방운동’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2) 예를 들어 모더니즘문학에 대한 재평가와 속지주의 입장의 관철 등을 들 수 있다.

과 臺灣信託統治論, 1958년 미국과 일본이 추진한 兩個中國論과 一中一臺論이 대만독립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들은 1950년대 東京과 1960년대 北美지역을 무대로 臺獨運動을 진행하였고 해엄 후 국내로 들어와 黨外運動과 결합하면서 民進黨으로 정치 세력화했다. 그동안 대만내부에서는 장기간의 계엄으로 정치를 배제한 기타영역에서의 대만 독자성과 자주성담론의 건립에 주력했는데[83] 앞서 보았듯이 1970년대 말 葉石濤가 제기한 '대만의식'은 바로 文學臺獨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그는 중화민족입장의 작품은 '독소'이며 '공해'라는 주장, 대만문학의 '선명한 자주성격'과 '강렬한 자주의식'의 강조를 거쳐 중국과 완전히 분리된 일국문학으로서의 대만문학론을 건립했다.

1970년대 향토문학논쟁의 당사자로서 초기부터 葉石濤로 대표되는 文學臺獨論의 전 과정을 지켜 본 陳映眞은 獨立派에 맞서 일당백의 역할을 했고 그만큼 대중국주의자, 중국대변인이라는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84] 그는 처음에는 주로 방어적인 입장에서 양안이 반봉건, 반제국주의의 동일한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데 착안해 분리주의 담론을 비판하고 대만문학의 민족귀속성을 주장했으나 1980년대 이후 본토문단이 강대해지고 정치운동과 결합해 대만민족론을 제기하자 역사, 사회학적 관점에서 문제점과 배후동인 등을 지목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갔다. 그의 이런 입장은 앞서도 서술했듯이 대만의 각 역사시기와 사회단계에서의 민족탄압과 계급모순의 구조와 본질이라는 시각에서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탄압과 이에 대한 저항의 틀로 대만과 중국의 통일과 분단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민지시기 대만도

83) 그중 문학부문은 1980년대부터 改組 후의 『臺灣文藝』와 『文學界』, 『文學臺灣』 등의 문학잡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84) 주로 당외잡지인 『生根』, 『前進』 등에서 있었던 中國結과 臺灣結의 논전에서 陳映眞은 늘 비판의 표적이었다.

내 지식인과 농민, 그리고 중국내 대만인의 항일투쟁은 민족주의의식에 기초한 조국회귀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1950년 이후 동서냉전과 국공내전의 이중구조 아래서 미국의 무장개입으로 양안이 분단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역시 제국주의의 중국에 대한 통제와 중국의 반통제 투쟁의 역학관계의 결과이며 향후 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 양안관계 역시 분단에서 재통합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文學臺獨이 외성인(중국인)에 압박받고 차별당한 본성인(대만인)의 존엄과 권리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 대만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자산계급 정치요구의 문학적 표현일 뿐이며 이점에서 그들이 표적으로 삼았던 국민당의 반공 통치이데올로기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동시에 중국의 분리를 획책하는 미일제국주의의 역할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로써 그 의도와 목적을 폭로하고 이를 직시할 것을 지식인들에게 촉구했다. 나아가 1988년 이후 李登輝(1923~2020)에서 陳水扁(1950~)으로 이어지는 대만자산계급 臺獨 정치세력의 金權政治 본질과 부정부패의 실상을 비판하면서 臺獨運動의 사상적 빈곤이 낳은 대만식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85]

葉石濤를 비롯해 文學臺獨논자들이 제기한 ① 신문학의 형성에서 오사문학영향의 배제 ② 1930년대 향토문학과 대만화문논쟁을 漢族쇼비니즘과 대만본토파의 투쟁으로 보고 대만문학의 자주성과 주체의식의 맹아라고 해석 ③ 황민문학관과 재대만 일본인작가에 대해 일본이 가져온 현대화에 대한 반응과 대만의식의 구비했다고 해석 ④ 1947~1949년의 橋副刊 논쟁에 대해 중국문학파와 대만문학파의 대립이라고 해석 ⑤ 1970년대 향토문학논쟁을 대만문학 주체의식과 자주의식의 발로라고

85) 「臺灣戰後民主主義的淸理」, 『人間思想與創作叢刊12·貪腐破解了臺獨政權的神話』, 2006.10.

왜곡 ⑥ 陳芳明 대만신문학사의 식민지시기, 재식민시기, 후식민지시기의 시대구분 등등 문학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때로는 사료의 발굴과 해석으로 왜곡을 바로잡고, 때로는 역사와 사회성질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부재를 질타하며 비판을 진행하여 분리주의 시도로부터 대만문학을 중국문학의 범주로 귀속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로써 1970년대 동일하게 모더니즘문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해 대만민중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리얼리즘에의 선호를 보여주었던 葉石濤와 陳映眞은 臺獨정치운동의 진전과 더불어 대만문학의 중국에의 통일과 독립이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이 두 가지 길을 둘러싼 여러 쟁론은 학술장에서 여전히 유효하지만 대만문학 연구기구의 증설과 인재양성, 젊은 층의 대만독립에 대한 보편적 지향성,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양안관계의 경색 등 원인으로 葉石濤의 길이 현재 대만문학에 대한 연구와 토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陳映眞이 줄곧 제기하고 있듯이 감정에 호소하는 臺獨派의 유심론적 역사해석과 사료의 편향적 전유, 사상이론의 빈곤으로 인한 학술적 타당성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향후 양안간의 관계변화에 따라 陳映眞의 길 역시 가능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중국은 分合을 거듭하며 앞으로도 기나긴 여정을 지속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투고마감일 : 2021년 10월 31일
투고연장일 : 2021년 11월 16일
논문투고일 : 2021년 10월 16일
심사개시일 : 2021년 11월 26일
심사완료일 : 2021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10일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財團法人文學臺灣基金會(2008),『葉石濤全集(13-20)』, 國立臺灣文學館·高雄市政府文化局.

亞際書院·亞太/文化研究室(2017),『陳映眞全集(1-23)』, 人間出版社.

2. 단행본

蕭阿勤(2012),『重構台灣：當代民族主義的文化政治』, 聯經出版社.

陳明成(2013),『陳映眞現象：關於陳映真的家族書寫及其國族認同』, 前衛出版社.

최말순(2019),『식민과 냉전하의 대만문학』, 글누림 출판사.

崔末順(2021),『殖民與冷戰的東亞視野：對臺韓文學的一個觀察』, 遠景出版社.

彭瑞金(1999),『葉石濤評傳』, 春暉出版社.

3. 논문

陳芳明(1999),「葉石濤的台灣文學史觀之建構」, 鄭炯明編,『點亮台灣文學的火炬:葉石濤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春暉出版社, 153-174쪽.

_____(2020.12.), 「葉石濤與陳映眞:八〇年代台灣左翼小說的兩個面向」,『台灣文學學報』第十七期, 國立政治大學臺灣文學研究所, 29-43쪽.

應鳳凰(2001),「首倡'台灣意識'的文學評論家」,『廿世紀台灣代表性人物(上)』, 望春風文化公司, 62-76쪽.

呂正惠(2002), 「葉石濤和戰後台灣文學的'斷層'與'跨越'」,『殖民地的傷痕：台灣文學問題』, 人間出版社, 119-134쪽.

彭瑞金(2004),「從黃石輝到葉石濤－台灣文學本土論爭的發端到終端」,『台灣新文學發展重大事件論文集』, 國家臺灣文學館, 156-174쪽.

許俊雅(2005),「葉石濤台灣文學論的衍變進程研探」,『見樹又見林－文學看台灣』, 渤海堂文化公司, 259-287쪽.

松永正義(2009),「70年代的意義:以陳映真為線索」,『陳映真創作50週年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文訊雜誌社, 303-311쪽.

林瑞明(2008.10.),「兩種台灣文學史—台灣V.S.中國」,『臺灣文學研究學報』第七期, 國立臺灣文學館, 107-145쪽.

朱雙一(2010.6.),「民族主義作為帝國主義侵凌的產物—陳映真的'民族主義'觀」,『台灣研

究集刊』3期, 64-72쪽.
賀照田(2010.6.), 「當社會主義遭遇危機-陳映真80年代的思想湧流析論之一」, 『台灣社會研究季刊』78期, 115-181쪽.

▌국문요약

葉石濤(1925~2008)와 陳映眞(1937~2016)

– ‘대만문학’의 두 갈래 길 –

최 말 순

본문은 葉石濤(1925~2008)와 陳映眞(1937~2016)의 평론활동과 그들이 남긴 문학론을 통해 197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대만문학’의 개념과 범주, 성격을 둘러싸고 진행된 문학에서의 독립 혹은 통일에 대한 쟁론을 고찰한 것이다. 이들은 대만문학장의 중요한 작가이며 평론가로 각각 대만의식과 중국의식의 대표자로 잘 알려져 있다. 본문은 이들의 문학론을 따라가면서 1990년대 중국과는 다른 일국문학으로서의 대만문학을 정립한 葉石濤의 대만문학론과 이에 대응해 대만문학의 중국귀속성을 일관되게 주장한 陳映眞의 중국문학론을 자세하게 고찰하여 이들이 어떠한 인식과 입장에 의해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동시에 그들의 문학론을 지탱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와 대만역사와 사회현실을 보는 시각, 다른 의견을 보여 주는 문학사의 각 의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 문학론의 논리적 타당성과 시대적 적합성을 사고하고자 했다.

핵심어 : 대만문학, 葉石濤, 陳映眞, 대만의식, 중국의식

▌Abstract

Yeh Shih-tao(1925-2008) and Chen Ying-zhen(1937-2016)

- Two paths in Taiwanese Literature -

Choi, Mal Soon*

The critique activities of Yeh Shih-tao(1925-2008) and Chen Ying-zhen(1937-2016), as well as their literary theories, are examined in this study. The main contents are about the concept, categories, and characteristics of 'Taiwan Literature' from the 1970s to the 2000s. In particular, debates about independence from or reunification with China are considered in the field of literature. Yeh Shih-tao and Chen Ying-zhen are crucial writers and critics of the Taiwan Literary Center, and are well known as representatives of Taiwanese and Chinese consciousness, respectively.

Following their literary theories,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theory of Taiwanese literature led by Yeh Shih-tao, who established Taiwanese literature as a literature of one country that is different from China in the 1990s, and the theory of Chinese literature led by Chen Ying-zhen, who consistently asserted the attribution of Taiwanese literature to China, in

* Associate professor,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Graduate Institute of Taiwanese Literature, Taiwan

response to that led by Yeh.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reveal what kind of perception and position led them to go down different paths. At the same time, I tried to think about the logical relevance and appropriateness of their literary theories by focusing on the theoretical basis that supports their literary theories, the viewpoints on Taiwan's history and social reality, and each agenda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that shows different opinions.

Key-words : Taiwanese literature, Yeh Shih-tao(葉石濤), Chen Ying-zhen(陳映眞), Taiwanese consciousness, Chinese consciousness